

女大生들의 指數値에 의한 體型 集團別
實際體型과 身體認識에 관한 研究⁺

李貞順

祥明大學校 衣裳디자인專攻 教授

Study of Real Somatotype and Perceived Body Classified
by Body Index of College Women⁺

Lee, Jung-Soon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Sangmyung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tudy the recognition of real somatotype and body of college women. The study was carried out by classifying somatotypes into three categories based on the body index: slim, normal, and obese somatotype. The subject of this study was 106 college women, and real measurement and survey were used. Data was analyzed by SPSS 12.0 and cross tabulation analysis, t-test, Anova, and correlation analysis were operated.

The result is as follows.

1. The height of the subjects was 163.5cm, weight was 53.3kg, Rohrer index was 1.2, BMI was 19.9, Vervaeck index was 84.4 and the classification based on the body index belonged to the normal group.

2. The characteristics of groups divided by the body index are that slimmer groups is longer in length factor and smaller in the factors related with volume than other groups. The characteristics of groups classified by self-consciousness shows significant difference in all girth factors, back intersyce breadth, front intersyce breadth, neck to nipple length, and nipple to nipple breadth.

3. Conscious about the somatotype with using body index generally shows similarity. In the length factor including height, slim somatotype group is perceived as longer than normal somatotype group, and in the girth factor including weight, normal somatotype group is recognized as bigger and thicker than others.

Key Words : real somatotype(실체체형), perceived body(인지체형), body index(신체지수)

⁺본 연구는 2007년 상명대학교 디자인연구소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Lee, Jung-Soon, Tel.+82-41-550-5202, Fax.+82-41-550-5206
E-mail: jslee@smu.ac.kr

1. 서론

인간은 누구나 아름답고 매력적인 신체를 가지고 싶어 하며,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타인에게 보이기를 원한다. 그리고 상징적인 제품인 의복을 통하여 자신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자아를 표현하고자 한다. 체형에 관한 인식은 사회적, 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체형에 관한 가치기준도 대상에 따라 변화하며 특히 젊은 여성의 경우 청소년기부터 마른 체형을 선호하기 시작하여 여대생의 경우 체형에 대한 관심도는 대단히 높은 편으로, 여성들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는 신체적 아름다움이 인생의 추구목표가 되기도 한다. 여성들은 유행하는 스타일의 옷이 자신의 몸에 맞지 않을 때 신체에 대한 불만을 가지며 그 원인을 의복자체 보다는 자신의 신체로 돌린다¹⁾. 자신의 신체에 대한 왜곡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자신의 신체에 대해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는 것으로 인식상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신체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정서적인 반응에서 기인한다²⁾. 자신의 신체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는 실제체형과 함께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판단하는 인지체형의 영향을 받으며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갖는 이상형과도 관련성을 갖는다. 체형과 관련하여 젊은 여성들이 마른체형을 이상형으로 삼으며, 인지체형이 실제체형보다 신체만족도에 중요하게 작용함을 밝히고 있는 선행연구들이 있으며³⁾⁴⁾⁵⁾, 체형과 의복행동과의 관계를 규명한 선행연구⁶⁾⁷⁾⁸⁾ 등이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날씬하고 마른 체형을 선호하고 있으며, 자신의 몸매와 체중에 대하여 불만족하는 사람이 급증하여 실제 비만인 사람은 물론, 표준체형, 저체중인 사람들 까지도 자신이 비만이라고 인식하여 체중을 줄이려는 젊은 여성들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⁹⁾. 일반적으로 비만, 표준체형, 저체중 등, 체형을 판정하는데 신체 지수치를 이용하여 체형을 판정하는 방법은 신체계측치를 이용하여 계산식에 의하여 구해지는 까닭에 측정방법이 간단하여 의류학 분야에서 많이 이용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체형분류를 객관적 분류와 주관적 분류로 구분하여 객관적 분류는 신체 계측치

를 통한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되는 신체 지수치를 이용하여 마른체형집단, 표준체형집단, 비만체형집단으로 분류하고, 주관적 분류는 본인이 인식하는 체형으로 마른체형, 표준체형, 비만체형으로 구분하여 집단별 신체계측치의 평균과 차이, 집단별 신체 인식의 정도에 대한 평균 및 차이 검증은 통하여 여대생들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19세에서 23세의 여대생 106명을 대상으로 2006. 04. 15~05. 10에 설문조사와 함께 실제체형을 살펴보기 위한 직접계측을 실시하였다.

2. 설문조사내용

설문항목은 신체부위 인지 관련 18문항과 자신의 신체에 대한 주관적인 분류 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신의 신체부위별 굵기와 길이에 관련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신체부위 인지 관련 18문항을 5단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평가항목은 연구자가 계측부위를 기준으로 굵기와 길이로 표현하여 제작하였다. 자신의 체형에 대하여 마른체형, 표준체형, 비만체형으로 구분하여 전반적으로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평가하였다.

3. 실제체형 파악을 위한 계측

1) 직접계측항목

실제체형파악을 위해 직접계측과 신체 지수치를 이용하였으며, 직접계측은 줄자와 신장계, 어깨각도기를 이용하여 실시하였으며, 신체 지수치는 직접계측치를 이용한 계산치를 산출하였다. 직접계측항목은 젖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위팔둘레, 아래팔둘레, 손목둘레, 넓다리둘레, 장딴지둘레의 둘레 항목 8항목, 어깨길이, 팔꿈치길이, 소매길이, 등길

아, 앞길이, 바지길이, 엉덩이길이, 밑위길이, 유두길이, 유두간격의 길이항목 10항목, 어깨너비, 앞품, 뒤품의 너비항목 3항목, 어깨각도 좌, 우, 신장, 체중 등 25항목을 계측하였다. 인체 계측시 기준점과 기준선은 인체측정용어인 KS A 7003에 의하였고, 계측방법은 인체측정방법인 KS A 7004에 준하여 계측하였다.

2) 신체지수치¹⁰⁾

$$(1) \text{Rohrer Index(RI)} = (\text{체중}/\text{신장}^3) \times 10^5$$

인체총살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1.2미만이면 수척, 1.2~1.5이면 정상, 1.5이상이면 비만으로 분류하였다.

$$(2) \text{Body Mass Index(BMI)} = (\text{체중}/\text{신장}^2) \times 10^4$$

신체비만도지수로서 BMI가 19미만이면 수척, 19~24이면 정상, 24이상이면 비만집단으로 분류하였다.

$$(3) \text{Vervaeck Index(VI)} = \langle (\text{체중} + \text{가슴둘레}) / \text{신장} \rangle \times 100$$

같이나 너비의 성장관계가 포함된 지수로 비흉위, 비체중을 더한 것과 같다. 74~81.9이면 협신형, 82.0~92.2이면 광신형, 92.3 이상이면 비만형으로 분류하였다.

4. 자료 분석 방법

연구 자료는 SPSS 12.0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신체의 직접측정에 의한 실제체형, 신체크기 인식에 의한 인지체형 등에 대하여 기초통계와 교차분석, T-test, 분산분석,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고찰

1. 신체 계측치 및 지수치

조사 대상자들의 신체계측의 결과는 <표 1>과 같으며, 연구대상자의 신체 계측치는 신장은 평균

163.52cm, 체중은 평균 53.30kg으로 국민표준체위보다 신장은 2.4cm 크고, 몸무게는 0.82kg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표적인 둘레 항목인 가슴둘레는 84.62cm, 허리둘레는 67.70cm, 엉덩이둘레는 94.01cm 로 나타났으며, 등길이는 39.14cm, 앞길이는 41.03cm, 유두길이는 24.39cm, 유두간격은 16.84cm 로 나타났다. 신체 지수치는 3개의 지수치 모두 정상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체형에 대한 객관적 분류와 주관적 분류와의 관계

자신의 체형에 대한 객관적 분류를 위하여 신체계측치를 이용하여 산출한 지수치와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인지체형을 비교해보면 <표 2>와 같다. 자신이 주관적으로 비만체형으로 느끼는 여대생들은 33%이며, 보통체형으로 느끼는 여대생들은 54.7%, 그리고 마른 체형으로 느끼는 여대생들은 12.3%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체지수치를 이용한 체형분류를 살펴보면 RI값으로 분류한 결과는 마른체형 48.1%, 표준체형 49.1%, 비만체형 2.8%, BMI값으로 분류한 결과는 마른 체형 33.9%, 표준체형 63.2%, 비만체형 2.8%로 나타났다. 그리고 VI값으로 분류한 결과는 마른체형 38.7%, 표준체형 55.7%, 비만체형 5.7%로 나타났다. 정옥임의 선행연구¹¹⁾에 의하면 BMI지수로 본 체형 평가 결과 수척한 여대생은 70.3%, 과체중 여대생은 0.4%로 본 대상자보다 수척한 여대생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RI지수에 의한 분류는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체형에 대한 객관적 분류와 주관적 분류의 결과에서 33%의 여대생들은 본인은 비만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체형에서는 정상으로 나타나 실제체형과 본인이 인식하는 체형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정옥임의 선행연구¹²⁾에서도 인지체형과 실제 체형간에 큰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성의 경우 마른 체형을 정상적으로 인식하는 풍토가 사회적으로 조성되어 있어 비만이 아닌 정상 체중인들조차 무모한 체중 조절을 시도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여성은 보통 주관적으로 자신의 체형을 평가할 때 실제 보다 비만한 쪽으로 생각하게 되므로 그 만큼 체중 조절에 대한 관심과 경험

<표 1> 신체 계측치 및 지수치의 기술통계량

항목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신장	163.52	5.36	151.65	177.70
체중	53.30	6.23	39.00	64.00
어깨너비	37.35	2.68	25.95	42.50
어깨길이	12.67	2.24	8.50	15.00
팔꿈치길이	32.11	2.01	28.75	37.00
소매길이	53.47	9.22	22.50	62.50
등길이	39.14	1.83	21.80	45.50
뒤통	33.53	2.85	25.00	39.00
앞놵	32.44	2.75	28.25	36.50
앞길이	41.03	4.03	37.40	44.50
유두길이	24.39	1.80	19.00	28.25
유두간격	16.84	1.66	14.75	27.00
젖가슴둘레	84.62	4.63	73.00	102.00
허리둘레	67.70	5.13	57.75	88.00
엉덩이둘레	94.01	4.16	84.50	108.00
위팔둘레	26.55	2.52	22.00	31.50
아래팔둘레	22.01	1.52	18.00	24.00
손목둘레	14.66	0.88	13.25	18.00
넓다리둘레	51.72	4.58	41.00	62.00
장딴지둘레	35.16	2.24	27.00	38.50
바지길이	101.39	6.27	88.50	114.55
엉덩이길이	21.11	1.94	17.30	27.80
말위길이	26.54	1.77	23.00	33.25
어깨각도(좌)	20.97	3.35	16.00	28.00
어깨각도(우)	21.17	3.72	14.00	32.00
RI	1.22	0.13	.98	1.53
BMI	19.92	1.77	15.62	24.69
VI	84.35	5.73	70.89	96.27

이 늘어나게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인지된 비만 수준은 객관적 비만수준인 체질량지수(BMI)나 체지방량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체형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 비만인식으로, 객관적인 비만수준에 의하면 비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판단하기에 비만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인식은 체중조절행동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¹³⁾¹⁴⁾¹⁵⁾ <표 3>에 자신의 체형에 대한 객관적 분류에 속하는 지수치와 주관적 분류에 속하는 인식 분류에 대한 상관관계를 제시하였다. <표 3>

에서 신체 지수치 간에는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인식분류와의 상관은 3개의 지수치 모두 유사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성민정 · 김희은(2001)¹⁶⁾의 연구에 의하면 BMI가 다른 신체지수에 비하여 체지방율과 상관성이 높고, 여러 신체 계측치와의 상관성이 높게 나타나 유용한 신체지수라 할 수 있으며 수척, 비만을 평가하는 신체지수로는 다른 지수치에 비하여 타당성이 높은 지수라고 밝혔다.

<표 2> RI, BMI, VI 분류와 인식분류의 교차분석표

분류		인식분류			합계 (백분율)
		마른체형	표준체형	비만체형	
RI	마른체형	12(11.3)	37(34.9)	2(1.9)	51(48.1)
	표준체형	1(0.9)	21(19.8)	30(28.3)	52(49.1)
	비만체형			3(2.8)	3(2.8)
BMI	마른체형	10(9.4)	25(23.6)	1(0.9)	36(33.9)
	표준체형	3(2.8)	33(31.1)	31(29.2)	67(63.2)
	비만체형			3(2.8)	3(2.8)
VI	마른체형	11(10.4)	30(28.3)		41(38.7)
	표준체형	2(1.9)	28(26.4)	29(27.4)	59(55.7)
	비만체형			6(5.7)	6(5.7)
합계(백분율)		13(12.3)	58(54.7)	35(33.0)	106(100.0)

<표 3> 체형의 객관적 분류와 주관적 분류의 상관관계

분류방법	RI	BMI	VI	인식분류
RI	1.000	0.951**	0.909**	0.715**
BMI		1.000	0.962**	0.719**
VI			1.000	0.715**
인식분류				1.000

**P<0.01

3. 체형의 분류방법에 따른 집단 간 체형특성

1) 지수치에 의한 집단 간의 체형특성 비교

체형의 분류방법에 따른 집단 간 체형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한 신체측치의 평균과 T-test 결과는 <표 4>와 같다. RI분류와 BMI분류에 의한 비만체형 집단은 3명, VI분류에 의한 비만체형 집단은 6명이었기 때문에 비만체형 집단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각 분류에 의한 집단 간의 신체특성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T-test에 의한 차이검정도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 중에서 키, 어깨너비, 등길이는 RI 분류에 의한 집단과 BMI분류와 VI분류간에 약간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나머지 항목에서는 같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키는 3 분류 모두 표준체형집단보다는 마른체형집단이 큰 반면 몸무게는 표준체형집단과 마른체형집단 간에 4.21~6.67kg까지 차이가

있었다. 등길이는 마른체형집단이 큰 반면에 앞길이는 표준체형집단이 약간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둘째 항목은 표준체형집단이 마른체형집단보다는 더 크게 나타났다.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항목은 3가지 지수치가 거의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키, 몸무게, 등길이, 유두길이, 유두간격, 젖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위팔둘레, 아래팔둘레, 넓다리둘레, 장딴지둘레 등이다.

이상의 결과에서 마른체형집단일수록 키는 크고, 등길이, 바지길이는 길며, 길이항목이기는 하지만 볼륨감과 관계가 있는 앞길이, 유두길이, 엉덩이길이, 밑위길이 등은 표준체형집단이 마른체형집단보다는 크게 나타났다. 몸무게와 둘째항목은 표준체형집단과 마른체형집단간에는 부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비만과 상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백희영 외3인(2000)의 선행연구¹⁷⁾결과

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박재경·남윤자·최경미(2004)의 한국과 일본여대생의 체형연구¹⁸⁾에서 한국여대생이 일본여대생 보다 길이 항목과 둘레항목에서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만도를 나타내는 지수치 간에는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남윤자·이승희(2001)의 한미 여대생의 체형연구¹⁹⁾에서는 RI가 한국여대생이 작게 나타나 미국여대생보다 마른 체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인식분류에 의한 집단 간의 체형특성 비교

인식분류에 따른 집단 간 체형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한 신체계측치의 평균 및 분산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인식분류는 마른체형, 표준체형, 비만체형의 3집단으로 분류하였다. 3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몸무게, 뒤통, 앞뚱, 유두길이, 유두간격, 젖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위팔둘레, 아래팔둘레, 손목둘레, 넓다리둘레, 장딴지둘레 등이다. 키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마른체형집단이 가장 크고, 다음이 표준체형집단, 비만체형집단의 키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모든 항목은 비만체형집단의 평균치가 가장 크고, 다음이 표준체형집단, 마른체형집단의 평균치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신체 지수치에 따른 집단별 신체계측치의 평균 및 T-test

항목	RI		T-test	BMI		T-test	VI		T-test
	마른 체형	보통 체형		마른 체형	보통 체형		마른 체형	보통 체형	
키	165.49	161.35	9.114***	164.19	163.11	0.536	164.19	162.88	0.933
몸무게	50.60	54.81	26.178***	48.52	55.19	47.136***	48.89	54.84	50.179***
어깨너비	37.82	36.73	3.575	37.48	37.17	1.489	37.30	37.16	2.107
어깨길이	12.65	12.70	0.014	12.47	12.77	0.212	12.37	12.86	0.580
팔꿈치길이	32.23	31.99	0.794	31.82	32.33	1.411	31.82	32.31	0.746
소매길이	52.45	54.85	2.427	52.03	54.67	2.570	51.53	55.09	2.201
등길이	39.37	38.63	9.102***	39.20	38.96	5.857**	39.16	38.94	4.213*
뒤통	33.22	33.74	0.547	32.69	33.95	2.508	32.74	33.89	3.604*
앞뚱	32.37	32.44	0.022	31.96	32.69	0.851	31.78	32.78	2.464
앞길이	40.75	41.05	0.754	40.07	41.44	2.078	40.13	41.42	2.236
유두길이	24.09	24.49	3.330*	23.83	24.60	5.001**	23.84	24.52	8.620***
유두간격	16.39	17.18	3.924*	16.06	17.22	7.271**	16.09	17.21	8.673***
젖가슴둘레	82.20	86.29	26.555***	80.96	86.17	39.127***	80.75	86.14	85.282***
허리둘레	65.18	69.11	37.522***	64.17	68.96	44.076***	64.10	68.84	64.073***
엉덩이둘레	92.16	95.23	17.441***	91.30	95.14	22.889***	91.24	95.13	29.919***
위팔둘레	25.56	27.15	19.044***	25.03	27.11	24.992***	24.95	27.04	40.411***
아래팔둘레	21.52	22.41	7.412**	21.05	22.46	15.970***	21.12	22.41	19.720***
손목둘레	14.50	14.81	1.617	14.22	14.90	8.002**	14.29	14.81	10.737***
넓다리둘레	50.26	52.35	15.434***	49.32	52.54	20.484***	49.42	52.33	23.735***
장딴지둘레	34.19	35.84	17.054***	33.60	35.87	26.842***	33.75	35.77	28.572***
바지길이	103.06	99.56	4.362*	102.19	100.88	0.621	102.34	100.45	1.448
엉덩이길이	21.15	21.09	0.305	20.92	21.26	0.657	20.94	21.26	0.361
밀위길이	26.46	26.59	0.973	25.93	26.82	4.154*	26.22	26.64	1.601
어깨각도(좌)	21.07	20.76	0.157	21.24	20.85	0.213	21.12	20.97	0.030
어깨각도(우)	21.16	21.06	0.137	21.37	21.10	0.211	21.14	21.25	0.038

* P≤0.05 **P≤0.01 *** P≤0.001

<표 5> 인식분류에 따른 집단별 신체계측치의 평균 및 F-value

항목	인식분류			F-value
	마른 체형	표준 체형	비만 체형	
키	165.07	163.61	162.79	0.867
몸무게	48.47	51.59	57.98	22.442***
어깨너비	38.15	37.14	37.41	0.757
어깨길이	12.77	12.31	13.22	1.841
팔꿈치길이	32.37	31.93	32.33	0.557
소매길이	50.85	53.56	54.29	0.664
등길이	39.21	39.04	39.29	0.216
뒤폭	31.29	33.46	34.48	6.586**
앞폭	30.62	32.44	34.11	4.140*
앞길이	41.21	40.49	41.87	1.313
유두길이	23.67	24.03	25.26	7.037**
유두간격	16.04	16.69	17.40	3.926*
젖가슴둘레	80.33	83.30	88.43	30.938***
허리둘레	63.52	66.31	71.59	23.720***
영덩이둘레	89.96	93.24	96.81	20.621***
위팔둘레	23.96	25.90	28.59	32.395***
아래팔둘레	20.60	21.79	22.90	15.576***
손목둘레	13.94	14.61	15.02	8.423***
넓다리둘레	47.47	51.12	54.30	14.672***
장딴지둘레	33.31	34.63	36.83	22.113***
바지길이	103.42	101.32	100.76	0.863
영덩이길이	20.44	21.08	21.41	1.208
밑위길이	26.80	26.41	26.67	0.403
어깨각도(좌)	20.42	21.05	21.05	0.197
어깨각도(우)	21.04	20.98	21.53	0.248

* P≤0.05 **P≤0.01 *** P≤0.001

3. 체형의 분류방법에 따른 집단 간 신체인식도

1) 지수치에 의한 집단 간의 신체인식도 비교

체형의 분류방법에 따른 집단 간 신체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신체인식의 정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신체의 각 부위의 크기에 대한 인식도 항목에서 크기가 많이 작다는 인식을 가지는 경우에 5점 중 1점을 부여하고 반대로 크기가 크다는 인식을 갖는 경우에는 5점을 부여하였다. 신체에 대한 인식의 각 항목별 평균과 T-test 결과는 <표 6>과 같다. RI분류와 BMI분류에 의한 비만체형집단은 3명, VI분류에 의한 비만체형집단은 6명이었기

때문에 비만체형집단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각 분류에 의한 집단 간의 신체인식도는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T-test에 의한 차이검증도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특히 BMI분류와 VI분류는 다리길이를 제외한 항목에서는 같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RI분류에서는 어깨너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마른체형집단과 표준체형집단에 유의차가 나타났으며, BMI분류와 VI분류에서는 키와 팔길이, 어깨너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유의차가 나타났다. 키는 마른체형집단이 표준체형집단 보다는 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팔길이와 다리길이도 마른체형집단이 표준체형집단보다는 길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몸무게를 비롯한 모든 둘레항

<표 6> 신체 지수치에 따른 집단별 신체인식도의 평균 및 T-test

항목	RI		T-test	BMI		T-test	VI		T-test
	마른 체형	보통 체형		마른 체형	보통 체형		마른 체형	보통 체형	
키	3.18	2.45	8.293***	2.97	2.74	1.588	3.02	2.65	2.364
몸무게	3.00	3.80	22.170***	2.86	3.72	23.804***	2.85	3.77	28.161***
젖가슴둘레	2.22	3.00	14.054***	2.00	2.97	19.655***	2.00	3.00	22.842***
허리둘레	2.90	3.56	21.947***	2.81	3.49	20.634***	2.78	3.54	21.999***
엉덩이둘레	3.27	3.85	8.372***	3.22	3.76	7.340**	3.17	3.81	8.740***
위팔둘레	2.98	3.90	21.105***	2.84	3.81	20.885***	2.85	3.83	22.732***
아래팔둘레	2.73	3.29	15.018***	2.68	3.19	12.671***	2.68	3.22	11.751***
손목둘레	2.57	2.94	6.799***	2.49	2.93	7.571**	2.49	2.93	10.002***
넓다리둘레	3.59	4.38	16.946***	3.59	4.22	9.652***	3.54	4.31	13.047***
장딴지둘레	3.45	3.98	9.727***	3.43	3.88	7.515**	3.39	3.92	9.672***
팔길이	3.49	2.96	6.526**	3.32	3.19	1.347	3.34	3.17	1.112
다리길이	3.22	2.65	7.922**	3.14	2.84	2.716*	3.15	2.78	3.814*
어깨너비	3.30	3.17	1.587	3.11	3.28	1.828	3.13	3.25	3.020
상반신둘레	2.86	3.45	12.861***	2.70	3.42	16.648***	2.66	3.47	22.924***
하반신둘레	3.39	4.10	12.212***	3.41	3.94	6.354**	3.37	4.00	8.475***
전신비만도	1.87	3.02	40.685***	2.06	3.11	28.209***	1.95	3.17	42.313***

* P<0.05 **P<0.01 *** P<0.001

<표 7>인식분류에 따른 집단별 신체인식도의 평균 및 F-값

항목	인식분류			F-value
	마른 체형	표준 체형	비만 체형	
키	3.31	2.84	2.68	1.773
몸무게	2.08	3.35	4.12	69.001***
젖가슴둘레	2.00	2.46	3.26	13.144***
허리둘레	2.23	3.15	3.94	39.972***
엉덩이둘레	2.69	3.49	4.11	16.515***
위팔둘레	2.31	3.36	4.17	32.219***
아래팔둘레	2.15	2.98	3.49	21.780***
손목둘레	1.85	2.80	3.17	15.793***
넓다리둘레	2.77	3.93	4.66	41.429***
장딴지둘레	2.85	3.58	4.40	29.145***
팔길이	3.46	3.36	3.03	1.921
다리길이	3.15	3.00	2.83	0.849
어깨너비	3.00	3.22	3.37	0.964
상반신둘레	2.15	3.05	3.88	35.062***
하반신둘레	2.85	3.59	4.42	31.369***
전신비만도	1.60	2.49	4.08	96.391***

*** P<0.001

몸은 마른체형집단에 비하여 표준체형집단이 모두 크거나 굵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몸무게는 지수치의 분류에 따르면 마른체형집단이지만 본인이 인식하기에는 대체로 중간정도로 인식하고 있으며 지수치에 의한 분류에 따르면 표준체형집단이지만 본인의 인식도는 5점 척도 중 3.7이상으로 몸무게가 무거운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레 항목은 항목에 따라 인식하는 정도에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가슴둘레는 마른체형집단은 2.0~2.2로 인식하여 5점 척도 중 중간 이하로 인식한 반면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 넓다리, 장딴지둘레에 대한 인식도가 마른체형집단은 보통 보다 더 굵은 쪽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표준체형집단은 아주 굵은 쪽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상반신 보다는 하반신둘레에 대하여 굵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신비만도는 마른체형집단은 2.8~2.9, 그리고 표준체형집단은 3.9~4.1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윤주(2003)²⁰⁾의 연구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박재경 외 2인(2004)²¹⁾의 한·일 여대생의 인지체형에서도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2) 인식분류에 의한 집단 간의 신체인식도 비교

인식분류에 따른 집단 간 신체인식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한 신체인식도의 평균 및 분산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인식분류는 마른체형, 표준체형, 비만체형의 3집단으로 분류하였다. 3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몸무게와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위팔둘레, 아래팔둘레, 손목둘레, 넓다리둘레, 장딴지둘레, 상반신둘레, 하반신둘레 등, 둘레항목 전체와 전신비만도등이다. 몸무게는 마른체형집단은 5점 척도 중 2.08, 표준체형집단은 3.35, 비만체형집단은 4.12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레항목 중 가슴둘레는 마른체형집단은 2.00, 표준체형집단은 2.46, 비만체형집단은 3.26으로 대체로 작거나 보통 정도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는 마른체형집단은 2.23, 2.69, 표준체형집단은 3.15, 3.49, 비만체형집단은 3.94, 4.11로 자신의 집단과 유사한 크기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둘레 항목 중 넓다리와 장딴지

둘레는 가슴둘레와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보다는 대체로 굵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윤주(2003)의 연구²²⁾에서 여대생들은 이상적인 체형이 되기 위해서는 키는 더 커야 하며, 몸무게는 줄여야 하고, 가슴둘레는 더 커기를 원하고,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는 더 줄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론

여대생 106명의 신체 계측치와 지수치를 산출하고 지수치를 이용하여 마른체형집단, 표준체형집단, 비만체형집단으로 체형을 분류하여 이를 객관적 체형 분류라 하고 자신의 체형에 대하여 마른체형, 표준체형, 비만체형의 평가를 인식 분류로 하여 객관적 체형분류와 주관적 체형분류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각 체형분류에 대한 집단별 신체계측치의 평균 및 차이를 검증하고 각 집단별 신체 인식의 정도와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체형의 주관적 분류와 객관적 분류간의 관계는 대단히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지수치에 의한 객관적 분류에서 마른체형집단은 인식분류에서 대체로 표준체형집단으로 본인은 인식하고 있고 객관적 분류에서 표준체형집단은 대체로 비만체형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지수치 분류와 인식분류에 따른 집단별 신체계측치의 차이는 마른체형집단일수록 키는 크고, 등길이, 바지길이는 길며, 길이항목이기는 하지만 볼륨감과 관계가 있는 앞길이, 유두길이, 엉덩이길이, 밑위길이 등은 표준체형집단이 마른체형집단 보다는 크게 나타났다. 몸무게와 둘레항목은 표준체형집단과 마른체형집단간에는 부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비만과 상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3.신체인식도의 평균 및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RI분류와 BMI분류, VI분류 및 인식분류에 따른 차이는 키, 팔길이, 어깨너비를 제외한 전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상반신둘레 보다 하반신둘레를 마른체형집단과 표준체형집단은 실제체형보다는 더욱 굵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전신비만에 대한 인식은 마른체형집단은 중간 정도로 인식하고 있으며, 표준체형집단은 뚱뚱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여대생들은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인식체형과 실제체형에는 많은 차이가 있으며, 특히 신체 지수치에 의한 객관적 분류와 주관적 분류 간에도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점은 여대생들이 신체외모에 대한 불만족을 초래하게 되고, 의복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함께 신체적, 심리적으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의복행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Labat, K.L.(1988), Consumer Satisfaction/DisSatisfaction with the Fit of Ready to Wear Cloth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Minnesota. 조윤주 · 이정란(2004) 재인용
- 2) Jones, M.C. & Massen, P.H.(1985), Self-conceptions, motivation and interpersonal attitudes of early and late maturing girls. Child Development, 29, pp.491~498. 심정희(2006), “중년여성의 실제체형과 인지체형 비교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0(11), pp.1508 (재인용)
- 3) 조윤주(2003), “여대생의 체형 인식도와 만족도 차이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11), pp.73~80
- 4.) 구양숙 · 추태귀(1996),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신체만족도와 의복관여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5), pp.29~39
- 5) 남윤자 · 이승희(2001), “한·미 여대생의 실제체형과 인지체형의 만족도에 관한 비교”, *한국의류학회지*, 25(4), pp.764~772
- 6) 조윤주 · 이정란(2004), “여대생의 체형인식에 따른 만족도와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8(2), pp. 262~269
- 7) 서화숙 · 송정애(2004), “여대생의 신체적 특징에 따른 신체만족도 및 의복만족도, 외모 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6(3), pp.329~335
- 8) 위은하 · 박우미(2003), “중년여성의 신체부위 인지유형에 따른 신체만족도와 착의 의복 스타일”, *한국의류학회지*, 27(9/10), pp.1112~1123
- 9) 이호성 · 소영호(2005), “대학생들의 신체적 자기가치 인식이 다이어트 수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25, pp.715~727
- 10) 심부자(1995), “피복인간공학”, 교학사, pp.198~200
- 11) 정옥임(1993), “개인적 인식에 의한 인지체형과 실제체형과의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1), p.159
- 12) 정옥임(1993), 앞의 논문, pp.160~161
- 13) 이영주 · 임숙자(2001), “체중조절행동과 의복의 맞음성 만족도 상관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5(1), pp.13~24
- 14) 이호성 · 소영호(2005), 앞의 책, pp.715~716
- 15) 이정섭 · 김병희 · 정현철 · 이성은(2001), “여대생의 다이어트 경험에 관한 근거이론적 접근”, *여성건강간호학회지*, 7(4), p.596
- 16) 성민정 · 김희은(2001), “비만판정 지수에 의한 여대생의 체형분류 및 체형인지도”, *한국의류산업학회지*, 3(3), pp.227~234
- 17) 백희영 · 남윤자 · 박재경 · 김주연(2000), “신체에 대한 인식과 계측자료에 의한 여대생들의 체형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3), p.65
- 18) 박재경 · 남윤자 · 최경미(2004), “한국과 일본 여대생의 실제체형과 인지체형 및 신체 만족도에 관한 비교”, *한국의류학회지*, 28(6), pp.758~766
- 19) 남윤자 · 이승희(2001), 앞의 책, p.104
- 20) 조윤주(2003), 앞의 책, p.75
- 21) 박재경 · 남윤자 · 최경미(2004), 앞의 책, p.762
- 22) 조윤주(2003), 앞의 책, p.76

(2007년 7월 10일 접수, 2007년 9월 20일 채택)